

“고3 진학·사회진출 무한정 유보할 수 없어 대면수업 결정”

교육부, 오늘 고3 등교 강행 배경

정부가 일부에서 제기되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감수하고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등교수업을 강행한 것은 ‘고3 학생 45만여명의 상급학교 진학, 사회진출을 무한정 유보할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등교를 하루 앞둔 19일에도 ‘등교를 연기해 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잇따르는 등 반발도 적지 않은 상황에서 등교이후 코로나19 확산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9일 “20일부터 고등학교 3학년들의 등교 수업이 시작된다”며 “고3은 매일 등교를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학기 개학준비추진단 회의를 주재하며 “(20일은) 코로나19로 미뤄진 등교가 시작되는 의미 있는 날이지만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애초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주재하기로 했다가 고3 등교 개학을 하루 앞두고 유 부총리 주재로 격상됐다. 코로나19 전파 우려가 남아 있지만, 교육부는 20일 진학·취업이 시급한 고3을 시작으로 일주일 단위로 순차적으로 등교 수업을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코로나19 위험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매우 어렵게 등교 수업 결정을 했다”면서 “코로나19 상황이 언제 종식될지 알 수 없고 가을 대유행이 언급되는 상황에서 45만명 고3 학생들의 상급 학교 진학, 사회 직업 진출의 길을 무한정 유보할 수 없다”며 등교 결단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교육부는 오늘(19일)부로 비상 상황실을 운영하고 비상 근무 체제로 전환할 것”이라

고3 이외 학년 격주·격일 등교 학생 밀집도 최소화 주력 할 것

정총리 “지역감염, 방역망 감당할 수준” 일부선 ‘등교 연기’ 청원 등 반발 움직임

며 “교육청도 전국적으로 24시간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등교 수업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신속히 추가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학생 분산을 위해 “고3은 매일 등교를 원칙으로 하되 과밀 학습을 특별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분반 수업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할 도록 할 것”이라며 “고3 이외의 학년은 격주, 격일, 주 1회 이상 등교 등의 방식으로 등교 학생 밀집도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등교 개학이) 쉽지 않은 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코로나19 종식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한 번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며 “교육부 등 유관부처 모두 최선을 다하고 부족한 점은 신속하게 보완하면서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정부와 학교, 가정이 힘을 모으면 안전한 등교수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의 모두발언에서 “내일 고3부터 등교수업을 시작하는데, 안전에 대한 우려도 일부 있다”며 “하지만 현재 지역감염 상황은 방역망이 감당할 수 있는 수



정세균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오른쪽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등교를 연기해달라”는 취지의 국민청원글이 연이어 올라오는 등 반발 움직임도 터져나오고 있다.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따르면 지난달 24일 올라온 ‘등교 개학 시기를

미루어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글에는 이날 오전 10시40분 기준 23만2880명이 동참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우려가 최근 이태원 클럽발로 다시 확대되면서, 이 청원 외에도 ‘개학 연기’를 요구하는 청원글이 게재되는 상황이다.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 개

시판에는 ‘모든 초, 중, 고, 대학교 등교 개학과 대면 강의를 미뤄주세요’라는 글이 게재됐다. 이 청원글은 이날 오전 11시 기준 2719명이 동의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연합뉴스

전대 시작도 안했는데...이낙연 거취 당권 구도 최대 변수

이낙연 “오래 끌면 바람직 하지 않아” 전대 출마 여부 조만간 결정 송영길·우원식, 이 위원장 도전엔 불출마...김부겸도 불출마 가다

더불어민주당의 8월 정당대회를 앞두고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의 거취가 당권 구도의 최대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이낙연 위원장은 지난 18일 광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당권 도전 여부와 관련, “너무 오래 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혀 전대 출마 여부를 조만간 결정하겠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당내에서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인사들은 이 위원장이 어떠한 결단을 내릴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인사들은 이 위원장이 당권 도전에 나선다면 불출마로 선회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당장, 송영길 의원은 19일 차기 당 대표 출마 여부에 대해 “지금 상황 자체가 유동적”이라며 “이낙연 전 총리의 출마 여부가 확정 안 된 상태에서 좀 더 상황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에 출연, “조만간 이 총리를 만나 뵈

기로 했다. 같이 만나서 내용을 정리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는 송 의원이 이 위원장과 같은 전남 출신이라는 점에서 함께 출마한다면 호남 표 분산 등으로 당권 잡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우원식 의원이 이 위원장이 출마하면 불출마를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우 의원은 “180석 여당으로서 21대 국회의 방향과 개혁 추진을 어떻게 가져갈지의 차원에서 전대를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권 도전설이 나오는 김부겸 의원도 전대 불출마 쪽으로 마음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전당대회에 출마하면 대선 출마는 어려운 것이고, 김 의원 본인도 그런 생각”이라며 “전대 출마가 대권 행보를 향한 징검다리로서 비쳐선 안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사실상 이 위원장에게 ‘대권을 생각한다면 당권 도전에 나서지 말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당내 대권 주자로 꼽히는 인사들 대부분이 당권 도전에 나서지 않은 상황이 때문이다. 이미 김두관 의원이 당권 도전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나타냈고, 박원순 시장과 이재명 지사도 현역 단재장이라는 점에서 당권 도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이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 주목된다.

이 위원장 주변에선 의견이 엇갈린다. 대권 도전을 위해서는 대표직을 꼭 거쳐야 한다는 주장과, 오히려 코로나 19 사태속에서 무리한 당권 도전이 결국 리더십에 상처만 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또 당내 최대 세력인 친문계가 어떠한 흐름을 보일지도 변수다.

결국 신중한 성격의 이 위원장이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이르면 5월말이나 6월초에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광주시 ‘코로나 적극 행정’ 대통령도 인정

광주·대구 ‘병상 연대’ 우수사례 언급 나눔·연대 통해 국가 재난상황 대응

코로나 19 확산 속에 광주시가 펼친 적극 행정이 호평을 받고 있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 40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광주의 적극적인 방역 대응을 우수 사례로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오월 정신이 코로나 극복에서 세계의 모범이 되는 저력이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광주와 대구의 ‘병상 연대’를 우수 사례로 언급했다.

‘병상 연대’는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해 입원 병실이 부족해 애를 태우던 대구를 위해 광주시가 전국 광역단체 최초로 대구 확진자를 광주로 이송해 격리치료한 사례다. 이는 나눔과 연대를 통해 적극적으로 국가 재난상황 대응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정부 지침보다 강화된 격리해제 조치를 발 빠르게 시행해 무증상 감염자로부터 지역 감염

을 초기에 차단한 점도 호평을 받고 있다.

코로나 19 방역 대책과 함께 광주시가 추진한 민생안정대책도 돋보였다.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지원을 비롯, ▲공공요금 동결 등 3대 경감 대책 ▲광주형 3대 긴급생계자금 지원 ▲전국 최초 고용유지지원금 전액 지원 ▲전국 최대 생활형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 ▲소상공인·중소제조업 신규채용 지원 등 6차에 걸친 민생안정대책 추진을 통해 체면적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이같은 광주의 나눔과 연대 정신에 기반한 따뜻하면서도 과감하고 선제적인 코로나 19 대응은 정부와 다른 지자체에서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영결 광주시 정책기획관은 “광주시의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적극 행정이 가능한 배경에는 이 용성 시장이 그동안 강조해온 ‘적극 행정’ 역할이 컸다”면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통해 광주의 저력을 확인하고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소통하는 대한민국

그 중심에 1등 보성군

농산물 지리적표시 제1호

보성녹차

수산물 지리적표시 제1호

벌교꼬막

전국 최대 주산지

보성키위

집에서 청정 보성의 우수농특산물을 만나보세요!

mall.boseong.go.kr 보성물 검색

유튜브 구독하고 댓글 달면 보성녹차를 얻을 수 있다고?!

보성군 대표 SNS 가입하기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greenboseong/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boseonglove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greenboseong/

유튜브
https://www.youtube.com/channel/UCN2Y1YUyYkU5Bhc69PqCpyQ

※ 매달 추첨을 통해 보성군 페이스북에 당첨자 게시를 합니다.